

 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
보도일시	<b>배포 즉시</b>		
배포일시	2020. 1. 11.(토)	대변인실	044-203-6572
담당과	국제교육협력담당관	담당과장	최수진 (044-203-6784)
		담당자	사무관 박민지 (044-203-6172)

## 제3회 한·일·중 교육장관회의 공동성명서 발표

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10일(금),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3회 한·일·중 교육장관 회의\*에서 중국 천바오성(陳寶生) 교육부장, 일본 하기우다 고이치(萩生田光一) 문부과학대신과 3국의 교육발전을 함께 논의하였다.

\* 일시/장소 : 2020.1.10(금) 16:30~17:40, 중국 북경 조어대 국민관(釣魚台 國賓館)

□ 이번 교육장관회의에서는 3국간 청소년 교류와 상호이해 촉진 및 고등교육 협력 강화, 미래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 체제 구축 협력, 3국 교육협력을 통한 역내 공동체 발전 도모 등이 논의되었다.

○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3국간 폭넓고 다양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추진, 캠퍼스 아시아\* 사업 확대·발전 및 3국 대학 간 인적 교류와 공동 연구 등 그간의 장관회의를 통한 협력 성과의 확대 발전뿐만 아니라,

\* 3국 교육부 공동 사업으로, 한·일·중 대학생 교류 및 3국 대학 간 공동·복수학위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(총 17개 컨소시엄(사업단), 총 40개 대학 참여 중)

○ 학령기 교육을 넘어선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출산·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간 교육협력 방안 등 미래지향적 교육 협력 범위 확대 방안이 포함되었다.

-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국 천바오성(陳寶生) 교육부장, 일본 하기우다 고이치(萩生田光一) 문부과학대신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
  - 한·중 양자회담을 통해 △양국 인적교류 활성화, △고등교육 정책 협력 강화, △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 촉진 및 양국 언어교육 활성화, △유아·평생교육 등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으며,
  - 이어서 한·일 양자회담을 통해 △주요 인적교류 강화, △양국의 정보활용 능력 및 ICT 교육을 위한 협력, △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
- 회의 종료 후, 3국 장관은 합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'21년 제4회 교육장관회의가 열리는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였다.

